33 일 봉헌 4일

제 1 장 첫째 시기 제 4 일, 권력과 명예

세속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더없이 자신을 낮추고 아첨하며 숭배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파렴치한 것도 사양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자신 안에도 이를 탐하는 기질이 없지 않다. 그러나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신”(루가 1,52)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 시작 기도 :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천천히 성호를 긋고 잠시 자신을 반성한 뒤 성령송가를 바치거나 성령에 관한 성가를 부른다.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2. 독서 : 아래 내용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거나 정독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본다.

1) 요한 복음 13, 1-17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악마는 이미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2) 참된 신심 196-200항

196.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날마다 행하는 태도들을 살펴보자. 첫째, 그들은 거룩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 속세의 잡된 일을 멀리하는 은둔을 좋아하고 내적이며, 기도에 전념한다. 그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본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마리아의 모든 영광은 내적인 것이고, 그분의 일생 동안 은둔과 묵상 기도를 몹시 좋아하셨다. 빛의 자녀들도 가끔 바깥 세상에 나가기도 하나, 그것은 오직 자기들의 신분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과 사랑하올 어머니의 뜻에 순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외적으로 어떠한 큰일을 한다 해도 내적으로 성모 마리아와 일치하는 일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적으로 하는 완덕이라는 큰일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일들은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때로 다른 형제자매가 매우 힘 있고 재치 있고 성공적으로 일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큰일을 이루어 내는데도, 하느님의 자녀들은 에사우나 그 밖에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어머니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그들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요한 자리에 들어앉아 있는 데에 더 많은 영광과 이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빛으로 안다. 마리아의 집에는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의 참된 부귀가 있도다.” (시편 112, 3 참조). “‘나의 왕, 나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여, 당신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이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 얻었사옵니다’ (시편 84, 3 참조). 당신이 일찍이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던 마리아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나이까? 선택된 이로 사는 그는 당신의 모든

도움을 받아 눈물의 골짜기,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덕에서 덕으로 올라가고 있나이다.” “만군의 야훼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좋으신가!” (시편 84, 1)

197. 둘째, 선택된 그들은 거룩하신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로서, 여왕으로서 진정으로 공경한다. 그들은 마리아를 말로써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고 있다. 마치 야곱처럼 마리아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고 마리아에게 의합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실천한다. 야곱이 어머니 레베카에게 드린 것처럼 새끼 염소 두 마리를 드리지 않고 야곱의 새끼 염소 두 마리로 상징되는 육체와 영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바친다. 그리하여 마리아께서는 그들을 마치 당신의 소유물처럼 받으시고 그들이 죄에 죽고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끊어 버리는 사람들을 친구와 제자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전구와 중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육체와 영혼이 깨끗해지고 자신을 억제하고 끊어 버리게 하며, 완전히 죽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이것은 모두 내가 지금까지 말해 온 바로서,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쳐진 선택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실천적이고 용감한 사랑이다.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며 그들의 육체를 그 관능과 더불어, 그들의 영혼을 그 격정들과 더불어 모두 희생하지는 않는다.

198. 셋째, 하느님의 자녀들은 성자께서 세상에서 공생활 전 30 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에게 완전히 순종하여 성부께 영광을 돌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표양을 본받아 사랑하올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한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창세 27, 8)고 말한 레베카를 따른 어린 야곱처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 5)고 말한 마리아를 따른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마리아의 권고를 정확히 따른다. 야곱은 어머니의 권고를 따랐기 때문에 그로서는 받을 수 없는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람들도 마리아의 권고를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청에 의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기적을 얻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도 마리아에게 바친 순종 덕분으로 세상 마칠 때까지 이러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에사우의 자녀들은 마리아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축복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199. 넷째, 하느님의 선택된 자녀들은 사랑하올 어머니 마리아의 인지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마리아의 도움을 청하고, 마리아를 무사히 항구로 이끄는 북극성으로 여긴다. 그들은 괴롭고 어려운 사정을 마리아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며 마리아의 전구에 의해서 죄의 용서를 얻고, 환난과 불안 속에서도 마리아의 모성적 사랑을 느끼고자 인자하고 감미로운 마리아에게 매달린다. 또 그들은 극히 작은 죄까지도 깨끗이 씻고, 마리아 안에서 영광스러운 왕좌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묘한 방법으로 마리아의 사랑 가득한 순결한 품속에 완전히 숨어든다. 아,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아브라함의 품속에 사는 것이 주께서 친히 그의 왕좌를 지은 마리아의 품속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믿지 말라.”고 게릭 대수도원장은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하느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한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좋아하고 마리아의 모성적인 사랑과 자비로움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 그들은 마리아가 주는 안전함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마리아에게 갖는 의지와 신뢰감도 알지 못한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과 마리아 안에 완전히 마련되어 있고,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마련되어 있는 감미로움을 맛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세속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다.

200. 다섯째, 빛의 자녀들은 마리아의 길을 따르고 덕을 본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행복해지고 경건해지며 틀림없는 구원의 표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의 길을 따르는 자는 복되.”(잠언 8, 32) 라고 마리아는 말한다.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고 성덕을 실천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리아를 충실히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 풍성한 은총과 위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현세 생활 중에서도 그들은 행복하다. 또한 그들이 평화롭고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되기까지 마리아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그들은 행복하다. 또 그들은 영원의 세계에서도 행복하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리아의 성덕을 본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어둠의 자녀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이나 죽을 때나 죽고 나서도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의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도 때때로 여러 신심회에 가입하고 어떤 기도를 바치거나 외적인 신심 행위를 실천하지만 그들은 오직 외적인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이다. “오 사랑하올 어머니시여!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어머니께 아뢰나이다. 어긋난 신심에서 방황하지 않고 어머니의 길과 권고,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나이까! 그러나 어머니께 대한 신임을 남용하여 어머니의 아드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나이까!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시편 119, 21).

3) 준주성범 제 3 권 4 장 1-5항

1. 주님의 말씀: 아들아, 진실하게 내 앞에서 거닐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아무런 공격에도 염려 없을 것이요, 악인들이 유인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그를 구원해 줄 것이다. 진리가 너를 구하여 준다면 너는 참으로 자유스러울 것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소리를 상관치도 않을 것이다.

2. 제자의 말: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도소이다. 내게도 이렇게 되기를 비나이다. 주의 진리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켜 주고 행복하도록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기를 비나이다. 진리가 악한 모든 정과 절제 없는 모든 사랑을 네게서 없애준다면 나는 마음의 큰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다니리이다.

3. 주님의 말씀: 나는 네게 무엇이 바른 길이요, 무엇이 내게 맞는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 너는 네 죄를 생각하고 그 잘못됨을 깨닫고 극히 슬퍼하라.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네가 도무지 무엇인체 생각지 말아라. 너는 과연 죄인이니 많은 사욕이 있고 많은 사욕에 잡힌

사람이다. 너로서는 항상 허무한 데로 기울어지고 쉽게 떨어지며, 쉽게 번민하며, 쉽게 실망한다. 너는 스스로 영광을 삼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너를 천히 보게 될 자료만 많으니 네가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더 연약한 사람이다.

4. 그러므로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훌륭한 것이 있다 생각지 말아라. 영원한 것이 아니면 큰 것도 없고, 기묘한 것도 없고, 무슨 가치를 줄만한 것도 없는 줄로 생각하라. 또 고상한 것도 없고 참으로 찬미할만한 것이나 부러울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라. 네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사랑할 것은 다만 영원한 진리요, 네가 항상 불만히 생각할 것은 너의 말 할 수 없이 천한 처지다. 네 악습과 죄악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책망할 것이 없고 더 피할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라. 그리고 세상에는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큼 원통히 여길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이 없이 내 앞에 드나드니, 자신의 일과 자기 구령에 대한 일은 소홀히 하면서 어떠한 호기심과 교오한 마음으로 나의 비밀을 알려 하고, 하느님의 고상한 사정을 알아들으려 한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일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제 교오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자주 큰 시련을 당하고 큰 죄에 떨어진다.

5. 너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무서워하라. 지존하신 분의 일을 변론하지 말고 네 죄악을 두루 살펴 얼마나 크게 범죄하고, 행할 수 있는 선공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지 헤아려 보라. 어떤 사람은 책을 가지는 데 신심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상본이나 무슨 표나 겉모양에 신심이 있는 줄로 안다.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나를 모신다 하나 그 마음에는 내게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어떤 사람은 그 지력에 광명을 받고 정서가 정돈되어 항상 영원한 데로 이끌리고 세속의 것을 거북하게 여기며 자연의 필요한 요구라도 간신히 돌아본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신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닫는다. 성령은 세상의 것을 천히 보고 천상의 것은 사랑하라 가르치고, 세상은 소홀히 보고 천국을 주야로 사모하라 가르친다.

3. 묵상(15-30 분) :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비추어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묵상 전 기도

죄에 물듦이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요,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저의 어머니시요, 주인이시며, 모후이신 마리아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 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부터 제게 영광과 힘을 간구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고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게 하소서.

아멘.

4. 생활 실천 : 묵상 중에 느낀 내적인 움직임이나 깨달은 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5. 묵주기도 : 환희의 신비를 바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묵주기도는 다른 시간에 바쳐도 된다).

6. 마침 기도 :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바다의 별** 기도를 바친다.

바다의 별

바다의 별이요,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평생 동정이시며, 하늘의 문이시여, 하례하나이다.

죄인의 사슬 풀고, 눈먼 이에게 빛 주시며

악을 멀리 쫓고, 선을 구해주소서.

기묘하신 동정녀요, 가장 양선하신 이여

저희를 죄에서 구해, 착하고 조찰케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삼위이신 성령께 같은 존경 있어지이다.